

kiri Weekly

2015.3.9 제323호

이슈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글로벌 이슈

신흥국 민영건강보험 확대 전망

2015년 중국 양회 주요 논의 내용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의 시사점

최창희 연구위원,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최근 금융위원회는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동 보험시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무역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했음.
- 시장 민간 개방에 따라 중소기업 요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독점과 보수적인 요율 체계로 인해 국내시장이 외국 대형 보험회사에 잠식당했다는 비판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인수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존재함.
- 단기수출보험은 시장 진입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초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동 보험이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본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은 2005년 무역보험 시장 개방 이후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무역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무역보험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 보험회사를 지원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현재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함.
-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일본 무역보험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당국은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효율적인 보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보험 이외의 보험 리스크 전가 방법을 인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민간 보험회사들은 경기·수입자 신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1. 단기수출보험 소개



■ 금융위원회는 2013년 8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¹⁾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시장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²⁾

- 상기 발표는 2017년까지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60% 이내로 감소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상품 인가 허용 방침을 밝혀 동 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³⁾
- 이에 따라 국내 12개 손해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사업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르면 금년 내 금융위에 관련 상품 인가를 신청할 계획을 피력하였음.⁴⁾

■ 단기수출보험은 단기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입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임.⁵⁾

-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리스크⁶⁾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리스크⁷⁾에 의해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함.
- 수출보험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에서 정부의 개입이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 진흥 수단임.
 - 동 보험은 수출자가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여 국내 수출자가 신시장을 개척하고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수출보험의 보험회사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제공하여 수출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1) 이하 ‘무보’라 함.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8. 27),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3)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42774&firstsec=1&secondsec=11

4)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111325451207&outlink=1>

5) 단기는 2년 이하의 기간임.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제도해설 3」 참조.

6) 신용위험(Commercial Risk)은 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신용장)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임.

7) 비상위험(Political Risk)은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위험임.

■ 단기수출보험은 무보의 주요 보험상품임(그림 1) 참조).

- 무보의 보험 상품에는 단기수출보험, 신용보증보험, 수입보험, 중장기성보험, 환변동보험, 기타보험 등이 있고 이들 중 단기수출보험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88%임.
-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실적¹⁾은 1992년 1조 6천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현재 180조 원 규모로 성장하였음.
- 무보가 판매하는 단기수출보험에는 선적후·선적전·수출채권유동화·농수산물패키지·중소중견 Plus+보험 등이 있음.
 - 단기수출보험의 대표 상품인 선적후 보험은 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한 뒤, 수입자(L/C거래의 경우는 개설은행)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함(〈표 1〉 참조).

〈표 1〉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주요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험계약자	수출자
보험가액 ¹⁾	수출대금
부보율 ²⁾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소기업 100% / 중견기업 97.5% / 대기업 95% - 중계무역: 95%이내 * 상기 부보율은 공사가 별도로 정한 국별인수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보험금액 ³⁾	보험가액 × 부보율
지급보험금	(손실액 - 면책대상손실) × 부보율
보험료 ⁴⁾	보험금액 × 보험요율

주: 1) 보험가액: 보험회사고 발생시의 경제적 손실(수출보험에서는 통상 수출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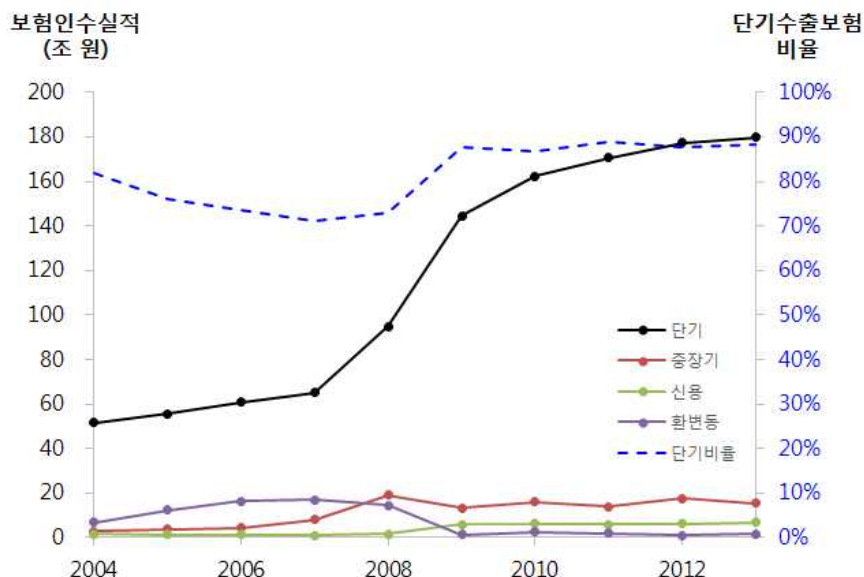
2) 부보율: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보상비율.

3) 보험금액: 보험회사(무보)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한도금액

4) 보험료: 보험요율은 수입자 신용등급(L/C거래인 경우 개설은행 소재 국가등급), 결제조건 및 결제기간에 따라 결정. 실무에서는 보험료를 보증수수료라 함.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trade/insurance/sei_shipment02.jsp) 참조.

〈그림 1〉 무보 보험 종목별 실적



주: 인수실적은 보험가액, 비중(오른쪽 축, 푸른색 점선)은 단기수출보험이 총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 각 실선은 종목별 실적.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jsp/business/pop_disclosure_03_11.jsp).

■ 무보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단기수출보험 손해율은 큰 차이를 보임.〈표 2〉 참조

- 2004년부터 2013년 사이 10년간 무보의 단기무역보험 보험료 총액은 중소기업(1,676억 원), 대기업(1조 원)으로 대기업 보험료가 전체에서 86%를 차지함.
- 동 기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손해율⁸⁾은 각각 95%와 67%로 무보는 대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에게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2〉 보험료 수입과 손해율(수출기업 유형별)

(단위: 억 원, %)

구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표준 편차
보험료	대	475	386	410	408	584	1,109	1,428	1,824	1,626	1,749	1,000	610
	중소	87	81	68	74	110	158	197	205	342	354	168	107
손해율	대	49	22	65	87	41	184	92	32	41	58	67	47
	중소	125	132	125	87	58	233	93	62	66	76	106	53

자료: 주효찬·주승효·이항석(2015), 「단기수출보험 상품포트폴리오의 리스크관리」, 2015 동계 보험학회.

8) 10년간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현가는 고려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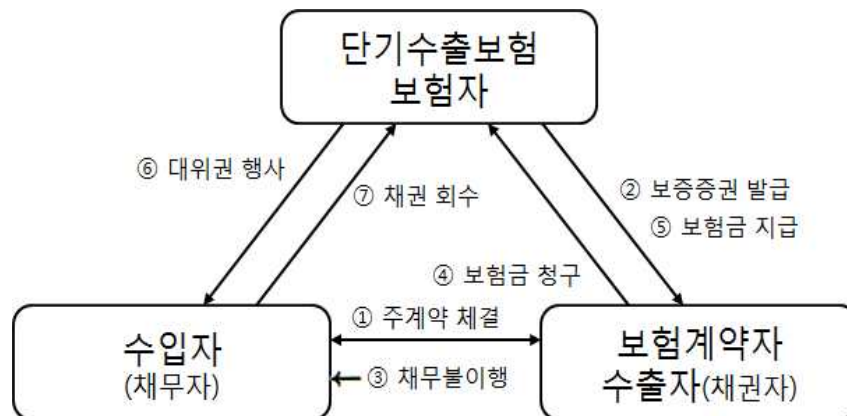
2. 단기수출보험의 특징



■ 단기수출보험은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수입자의 잠재 채무를 담보하므로 요율산출, 리스크 관리, 사업수행방법 등이 순수보장성손해보험⁹⁾과 다름(그림 2) 참조).

- 단기수출보험의 보험 리스크는 잠재 채무자(수입자)의 신용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회사는 해외에 있는 수입자 정보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보·관리하고 수입국의 정세 변화에 따른 수입자 신용 리스크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는 단기수출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수출자에 대한 채권추심 방법을 확보해야 함.
 - 수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수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대위권을 가지고 채무자인 수입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채권회수율에 영향을 받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고려하여 요율을 산정하여야 함.

〈그림 2〉 단기수출보험 계약 당사사간의 법적 관계



자료: 나동민·김관영·오창수·조강필(2000),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보증보험의 중장기 개발전략』,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pp. 38 참조.

9) '일반 손해보험'이라고도 함.

■ 단기수출보험의 보험 리스크는 수입국의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의 신용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이고 신용 리스크는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동 보험의 손해율은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¹⁰⁾
 - 무보는 2008년~2010년 세계 금융위기 기간 중 높은 손해율을 보였음(〈표 4〉 참조).
- 단기수출보험 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지급되므로 손해율은 경기 변화를 후행함.
 - “경기악화 ⇒ 보험금 청구 건수 증가 ⇒ 손해사정 ⇒ (소송 또는 조정) ⇒ 보험금 지급”

〈표 4〉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실적

(단위: 억 원,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표준편차
보험료	563	467	478	482	693	1,267	1,625	2,029	1,968	2,103	1,167	707
보험금	343	190	353	420	302	2,409	1,501	711	898	1,289	842	707
손해율	61	41	74	87	44	190	92	35	45	61	73	46

주: 표의 수치는 〈표 3〉을 이용하여 구했음. 손해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험료를 가중치로 하여 구함.
자료: 주효찬 외(2015).

- 외국 보험회사들은 경기와 손해율을 고려하여 요율과 보증한도를 조정하며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무보는 경직된 요율을 사용하여 만성적으로 저조한 보험영업 수익 문제를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¹¹⁾
-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¹²⁾은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보험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¹³⁾
 - 유럽과 미국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¹⁴⁾와 RBC¹⁵⁾는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를 이용한 보험 리스크 전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RBC는 재보험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만을 인정함.¹⁶⁾

10) Xiaoling Pu and Xinlei Zhao(2010), "Correlation in Credit Risk",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11) 박진근·신동천(2000), 『수출보험의 적정기금규모와 손해율에 관한 연구』, 수출보험학회지, 1, pp. 63-92.

12) 세계 신용보증보험 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아투라디우스(네덜란드), 코파스(프랑스), 율러 헤르메스(독일)를 일컬어 신용3사라 함. 머니투데이(2015. 1. 12) 참조.

13) <http://www.eulerhermes.nl/en/credit-insurance/our-solutions/multinationals/Pages/Securitization.aspx>, http://www.academia.edu/4673043/The_use_of_derivatives_by_US_insurers_Empirical_evidence_and_regulatory_issues

14) Castries and Claveranne(2010), "Derivatives: an insurer's perspective", Financial Stability Review, Banque de France, 14.

15) 최창희(2013),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제고를 위한 보험증권과 도입 필요성』, 주간포커스, 보험연구원 참조.

16) <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240186854180&url=/fss/kr/1240186854180>

3. 일본 무역보험 시장 민간 개방 사례



■ 현재 한국과 유사한 수출액과 보험료 규모를 가진 일본의 경우 2005년 이전까지 공기업인 일본무역보험¹⁷⁾이 일본 무역보험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음.

- 수출을 통한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1930년 수출보상법을 시행하여 정부가 수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분 보전해 주었음.¹⁸⁾
- 2005년 이전에는 일본무역보험이 무역보증보험 사업을 독점하고 일본정부가 일본무역보험에 대해 재보험을 제공하는 형태로 무역보증보험 시장을 운영하였음.¹⁹⁾
- 2013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은 각각 615조 원과 655조 원이고, 무보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2,380억 원과 2,690억 원임.²⁰⁾
 - 무보와 일본무역보험의 보험료는 각각 각국 수출액의 0.0342%와 0.0452%임.

■ 2005년 일본은 공기업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보증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음.²¹⁾

- 2005년 이후 일본 무역보험시장 개방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음.
 - 일본정부는 일본무역보험의 보험 리스크를 재보험으로 보증²²⁾하고 일본무역보험은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며 재보험 업무를 수행함.²³⁾
 - 민간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에 신청 후 일본무역보험의 도움을 받아 시장에 진입하였음.
 - 2005년 당시 7개 사가 시장 진출 신청, 6개 사가 시장 진출 계획 밝혔고 2008년 현재 11개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²⁴⁾

17) 独立行政法人日本貿易保険 (NEXI: 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18) 하영태(2013), 『일본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 특징과 최근동향』, 무역보험연구, 14(4), pp. 51 참조.

19) 안유신·장은희(2013), 『한국과 일본의 단기수출보험 약관 비료를 통한 개선점 연구』, 무역보험연구, 14(4) 참조.

20) 일본의 수출액과 일본무역보험 보험료는 일본무역보험 연차 보고서, 무보 보험료는 주효찬 외(2015), 한국의 수출액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2013년 수출 평가 및 과제 참조. 엔/원=9.25, 달러/원=1,099로 환산. 무보의 수입보험료는 단기수출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88%라고 가정하여 추정한 금액임.

21) 「簡素で効率的な政府&を実現するための行政改革の推進に関する法律」 참조.

22) 하영태(2013), pp. 56 참조.

23) <http://nexi.go.jp/webmagazine/feature/004248.html>

24)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oshi/trade_insurance/gyokaku/100202torimatome.pdf

■ 일본무역보험은 민간 보험회사가 진입장벽이 높은 무역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 보험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음.²⁵⁾

- 일본무역보험과 일본 금융당국은 청문회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무역보험 시장에서 일본무역보험과 민간 보험회사들이 협력해서 시장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일본무역보험은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 청구제도²⁶⁾와 다양한 지원 창구를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음.
 - 설명회·연구회 등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상품 및 심사 관련 노하우 제공
 - 민간 보험회사들의 개별적 협조 요청에 대응하는 창구 마련
 - 재보험 서비스를 통한 노하우 전수 및 리스크 관리 지원
 - 민간 보험회사에 업무 위탁(물건 공동 인수·관리)
 - 수입국의 정치·경제 정세 모니터링 정보 및 수입자 관련 정보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²⁷⁾

〈표 5〉 일본의 민간 무역보험 사용 현황 조사

(단위: 건수, (비율))

응답내용		연도		
		2009	2010	2011
무응답		1	0	1
민간보험회사 이용실적 있음		28(19%)	25(16%)	27(16%)
실적 없음	검토한적 있음	62(41%)	61(40%)	133(82%)
	검토한적 없음	59(39%)	66(43%)	
조사 건수		150	152	161

주: 위 결과는 무역보험 계약자들에게 민간 보험회사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설문조사한 것임.
 자료: 2013년 일본 무역보험 청문회 자료(『評価に当たって参考とする関係者の意見等』),
http://www.meti.go.jp/committee/summary/0002620/pdf/040_01_03.pdf 참조.

25) 일본 무역보험 관련 청문회 자료는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70607b04j.pdf>, [g60605a06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60605a06j.pdf), [g80513c07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80513c07j.pdf),
[g60605a07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60605a07j.pdf), [g80513c08j.pdf](http://www.meti.go.jp/committee/materials/downloadfiles/g80513c08j.pdf)

26) <http://www.nexi.go.jp/corporate/info/disclosure/>

27) http://nexi.go.jp/product/booklet/pdf/pr09_01.pdf

■ 일본금융당국과 일본무역보험이 민간 보험회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였음에도 2011년 현재 민간 보험회사 실적은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함.

- 일본 무역보험 민간 개방 이후 민간 보험회사의 실적은 2005년 5억 엔, 2006년 19억 엔, 2007년 28억 엔, 2008년 31억 엔 수준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나²⁸⁾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당시 무역보험 이용자 중 16% 만이 민간보험회사의 상품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표 5〉 참조).
- 이는 일본 보험회사들이 무역보험의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였기 때문임.²⁹⁾
 - 유럽의 수출보험에 대한 지원확대가 일본 수출보험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역보험은 재판매³⁰⁾가 가능하기 때문임.

4. 시장 민간 개방에 대한 논의



■ 중소기업들은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출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 지원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음.³¹⁾

- 무보는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해를 대기업 단기수출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정부출연금³²⁾으로 충당하고 있어 시장 개방 후 민간 보험회사들이 대기업 위주로 보험을 인수할 시 무보의 손해율이 악화되어 무보의 요율이 인상될 소지가 있음.
- 시장 개방 시 국내 보험회사들이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에 진입해 국내 시장이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에 잠식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³³⁾

28) 2010년 일본 무역 보험 관련 분야의 민간 보험 회사의 참가 상황에 대한 공청회 자료 참조.

http://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oshi/trade_insurance/gyokaku/100202torimatome.pdf

29) 2010년 일본 무역 보험 관련 분야의 민간 보험 회사의 참가 상황에 대한 공청회 자료 참조.

30) 예를 들어 유럽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해서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일본회사는 유럽의 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된 전자제품을 다시 일본으로 수입해서 이를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것으로 하여 일본에서 수출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

31) 머니투데이(2015. 1. 12), “46년 만에 빗장 풀 수출보험, 중소기업엔 보험료 폭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11114573861437&type=1> 참조.

32) 무보가 정부로부터 최근 지원받은 출연금은 연도별로 2011년(1천억 원), 2012년(300억 원), 2013년(2천5백억 원), 2014년 예산(천4백억 원)이었음.

33)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114573861437&outlink=1>

■ 이에 대해 보험 실무자들은 무보의 독점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우량 물건이 이미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 무보는 중소기업 단기수출보험 판매의 손해 상쇄를 위해 대기업 물건에 높은 요율을 적용
- 국내 민간 보험회사는 단기수출보험을 취급하지 못함.
- 대기업들은 리스크가 작은 수출 건의 보험을 무보보다 유리한 요율을 제시하는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음.

■ 주효찬 외(2015)는 무보의 담보 한계, 대기업 위주의 보험 판매, 인수 거절 시 대안책 부재 등의 이슈를 제기하였음.

- 한국의 수출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615조 원 규모인데 이는 무보가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³⁴⁾
- 무보는 대기업 위주의 보수적인 운영으로 단기수출보험을 판매하여 실적의 90% 정도가 대기업 건³⁵⁾이고 수출 1달러당 보험금 지급액이 세계 평균의 16%³⁶⁾에 밖에 되지 않아 수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무보가 특정 보험 인수를 거절할 시 국내에서 타 보험사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기업들이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수출보험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어 더 이상 무역보험공사가 이 시장을 독점하도록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³⁷⁾

- 일본은 민간 참여에 의한 이용자 선택 다양화와 무역보험 분야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 무역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음.³⁸⁾
- 중국정부는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의 높은 보험료, 비효율적 업무지원, 좁은 네트워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무역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였음.³⁹⁾

34) 2013년 현재 무보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3조 3천억 원, 2조 2천억 원 수준이고 매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사업비 충당을 위해 막대한 정부출연금에 투입되고 있음. 주석 10) 참조. 주효찬 외(2015)가 제시한 수치를 최근 값으로 대치하였음.

35) 주효찬 외(2015).

36) 박진근·신동천(2000) 참조.

37) 동아경제(2013. 10. 2), “단기수출보험 개방에 中企 우려 표명”.

38) http://www.iist.or.jp/wf/magazine/0330/0330_J.html

39) 왕차오·장동한(2015), 『중국 단기수출신용보험 민영화에 대한 연구』, 2015 동계 보험학회.

■ 보험 실무자들은 수출보증보험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높은 손해율로 인해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관련 상품의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정보 취득·관리 시스템, 채권추심을 위한 네트워크, 리스크 관리체계 등을 필요로 하여 이들을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민간 보험회사들은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소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거나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과의 제휴로 용이하게 상품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모델은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의 시장 잠식을 부추기고 국내 보험회사의 역량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높은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출보증보험은 손해율과 변동성이 높고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이 국내 우량 물건들을 이미 선점하고 있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⁴⁰⁾

5. 시장 민간 개방 대응 방안



■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단기수출보험 시장에서의 민간 보험회사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본 무역보험 사례를 참고해 동 시장에서 민간 보험회사들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정부와 일본무역보험이 최근 10년간 민간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였음에도 민간보험회사가 수출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민간 보험회사가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금융당국은 올해 단기수출보험 상품 인가 허용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민간 보험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2017년까지 무보 단기수출보험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하로 감소는 계획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금융당국은 민간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단기수출보험 시장 진입과 동 시장에서의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의 무역보험 개방 사례를 참고해 민간 보험회사의 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0) 수출보증보험 최근 10년(2004~2013년) 평균 손해율은 73%임. 동기 타 손해보험 종목별 평균 손해율은 화재(44.34%), 해상(67.63.7%), 자동차(81.91%), 보증(37.93%), 특종(61.28%), 장기 등임. <http://fisis.fss.or.kr/> 참조.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파생상품이나 증권화를 이용해 단기수출보험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전가하는 것을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하여야 함.

- 유럽의 솔벤시와 미국의 RBC는 재보험 이외에 보험증권화와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 리스크 전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의 지급여력제도인 RBC는 재보험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만을 인정하고 있음.
-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필요로 하는 단기수출보험과 같은 종목에서 파생상품과 증권화를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를 지급여력제도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보험 리스크가 과대평가되어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재보험, 파생상품, 증권화 등을 통한 보험 리스크 전가가 지급여력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고려하여야 함.

■ 민간 보험회사들은 경기·수입자 신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단기수출보험의 특징을 고려하여 단기수출보험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기와 지급여력을 고려한 국가별·수입물품별·수출자별 요율 조정 및 한도관리
 - 외국 보험회사들은 상황에 따라 요율과 한도를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함.⁴¹⁾
 - 보증보험은 경기에 따라 높은 손해율을 보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수출보험 리스크를 수출업종·수입자·수출자 등에 따라 경기 선행지표와 지급여력을 고려하여 보증한도와 요율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손해율이 수입국 경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보험, 파생상품, 보험증권화 등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는 보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신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해외 수입자 정보 수집 및 해외 채권추심 네트워크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무보 또는 해외 메이저 보험회사들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공동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들은 심사노하우 축적을 통해 각 물건의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고 경쟁력 있는 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1) 박진근·신동천(2000) 참조.

- 보험회사들은 단기수출보험 리스크를 수입자 신용도 및 재무 현황, 수입자 수입 실적, 수출자 수출 실적, 수입국의 정치적 안정도, 수입자·수출자 기존 보험 가입 규모 등 수집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의 리스크를 정확히 평가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음. **kiri**